

광주시, 장애인의 공원 이용 접근성 높인다

상무시민공원서 17번째 현장 경청의 날 행사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적극 추진 등

광주시는 12일 상무시민공원에서 17번째 현장 경청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등 장애인들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경청의 날은 이용섭 시장, 김일용 서구 부구청장, 정순애 시의원, 김태진 서구의원, 시민권익위원,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영대 시민권익위원장 사회로 진행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상무시민공원 시설을 둘러보고 야외무대에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이용해 공원을 찾는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한 시민은 “평소 상무시민공원을 즐겨 찾는데 이곳에 장애인용 전동충전기가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하거나,

충전을 위해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야 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민 누구든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아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공원에 나왔다가 방전이 돼 발이 묶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린공원 내 전동충전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에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및 지하철역 등에 총 90여 대가 설치돼 있지만, 야외 체육시설을 겸비한 근린공원에는 장애인용 전기충전기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서구 상무시민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17회 현장 경청의 날 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와 공원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현장 경청의 날을 통해 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어린이, 노인, 벽지마을 주민 등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보건부-장애인개발원 추석 명절선물세트 출시

농산물가공품·발효원액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은 추석을 앞두고 ‘추석 명절 곱드래 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곱드래’는 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 및 마케팅을 위해 운영하는 소규모로, 중증장애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상품이 장애인에게 곱과 희망을 드려 행복한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개발원은 건과류부터 제주영천토속된장 등의 농산물가공품, 과일 발효 원액 등 100여 개의 상품을 차별화된 디자인의 선물세트로 제작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육식용품, 주방세제, 손세정제 등의 다양한 생활용품도 선물세트에 구성했다.

선물세트는 ‘곱드래 쇼핑몰(www.goods.go.kr)’의 카탈로그를 다운 받아 원하는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상품 판매 페이지로 이동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 친지 등 소중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성된 곱드래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이번 중증장애인생산품 추석선물세트가 많이 판매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널리 알리고,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개발원은 지난 2009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마케팅,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전북장애인의료센터

보건의료인력 재활 관련 교육 실시

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회와 공동

원광대학교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난 12일 보건의료인력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주현(원광보건의료) 교수가 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 이해 및 재활 프로그램을 주제로 전북지역 장애인 담당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장애인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철 센터장은 “장애인들의 버팀목인 보건의료인력들의 실무 능력 향상으로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



원광대학교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난 12일 보건 의료인력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원광대학교병원 제공)

이 됐길 바란다”며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전환, 장애인의 건강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화순교육지원청 ‘힘내라!프로젝트’ 운영

관내 초·중학생 70여명 대상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7월부터 취약계층 등 불리한 여건이나 가정기능의 상실로 정서적 결핍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가정)을 대상으로 ‘힘내라!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힘내라! 프로젝트’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통해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화순 관내 초·중(장성·담양·장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포함)학교 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추진 내용으로는 크게 가족기능 강화, 생활지원, 사제동행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병원진료비, 생필품, 학습자료, 의류 구입, 1일가족여행, 외

식, 가족상담, 가족체험활동, 교사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등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힘내라! 프로젝트’에 지원 신청한 학생들의 사연을 보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 외국인 어머니의 가출, 고1이지만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학업중단 숙려제를 진행하고 있는 언니와 생활하는 여중생의 사연, 어려운 형편에 5명의 형제와 살면서 불규칙한 생활습관, 물려받은 옷으로 사이즈도, 계절도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초등생,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시는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하루 종일 게임과 유튜브에 노출되어 밤낮이 바뀌면서 학교생활이 무기력하고 몇일씩 씻지 않아 몸에서 냄새가 나는 학생 등 주변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이 필요한 사연도 다양하다.

최순=박순철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